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35
----------	------

발의연월일 : 2017. 3. 2.

발 의 자 : 김영춘·박 정·박홍근
김종대·이재정·신창현
김정우·유은혜·임종성
김철민·서영교·조정식
정인화·전재수·최인호
김해영·오세세·우원식
박재호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승인관청 소속의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50층 이상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시설, 호텔, 워터파크 등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는 규모의 사업의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인 해당 승인관청 소속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대상사업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나 부지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축위원회가 아닌 시·도지사 등 상급 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교통영향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제2항, 제17조제4항제4호 신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대상인 건축물”을 “대상인 건축물(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상사업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나 부지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가 승인관청에게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를 검토할 때에는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되거나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 ----- ----- ----- -----대상인 건축물(제4항제4호 <u>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u> <u>다).</u>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승인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④ ----- -----

서 그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
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승인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대상사업 건축물의 건축 연
면적이나 부지면적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